

## 大學의 自律性과 權威



成均館大 總長 張 乙 炳

교육 관계 회의에서 교육부 당국자들이 입을 모아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학의 자율성이 상당히 제고되고 있는 듯도 하다. 지난 날 문교 당국이 대학에 대해 “갑 나라, 대추 나라” 하던 시절에 비하면, 세태의 엄청난 변화를 느낄 수도 있다.

대학이 自律性을 인정받아야 함은 두말 할 나위없다. 흔히들 대학을 ‘眞理의 殿堂’이라고 일컫는데, 대학이 ‘진리의 전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율성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진리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만 발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제되고 획일화된 분위기에서는 진리는 발현될 수 없고, 허위의 조작이 다반사로 이루어진다.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들이 건주는 곳에서만 허위의 조작은 줄어들고 진리가 발현될 수 있는 법이다.

오늘날 대학이 權威를 잃고 이렇듯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통제되고 획일화된 분위기에서 진리를 발현시키기보다는 허위의 조작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었다. 대학은 사리를 따질 겨를 없이 정부 당국의 지시에만 순종했을 따름이었다. 대학은 진리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했는데도,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정부 당국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70~'80년대에 있었던 웃지 못할 처절한 일화 한 가지가 기억난다. 정부나 학교 당국의 지시에 따라 시위 현장으로 밀려 나간 교수들은 학생들과 몸 싸움을 할 수는 없었고 엉거주춤 지켜볼 따름이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팔짱을 끼고 있으면 왜 팔짱만 끼고 있느냐고 핀잔이었고,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왜 호주머니에 손만 넣고 있느냐고 힐책이었으며, 뒷짐지고 있으면 왜 뒷짐만 지고 있느냐는 나무람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들은 “이 손을 어찌하오리까”라고 한탄했던 것이다.

교수들 스스로의 사리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타율적인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리가 발현되기를 기대할 수 없었고 교수의 권위가 인정되기를 바랄 수는 없었다. 대학은 진리와는 동떨어진 곳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고, 권위가 처절하게 허물어져도 별 도리가 없었다. 오히려 대학은 진리와는 무관한 곳 혹은 명령만이 유행하는 곳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나마 다른 하나의 구성원인 학생들은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 저항했고, 때로는 독숨을 건 투쟁도 불사했는데, 그들을 지도한다 하는 교수들은 부당한 간섭에 따르고 있었으니 학생들의 눈에 비추어진 교수의 상이 어떠했을까는 가히 짐작되기도 남음이 있을 법하다. 不義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는 知的 風土일 때, 비로소 대학은 대학다울 수 있고 권위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새삼 自律性이 무엇이나고 따질 필요가 있으리요만, 한번쯤 절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싶다. 자율성은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지을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지을 수 있는 국가를 '주권 국가'라고 하듯,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지을 수 있는 집단을 '자율적 집단'이라고 일컫는다. 따라서 대학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지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율적 대학'인 것이다.

자유니 권리니 하는 등등의 긍정적인 가치일수록 적극적으로 쟁취했을 때 의미를 지니듯 대학의 자율성도 대학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했을 때 올바른 자율성이고 의미있는 자율성일 수 있다. 남들이 허용해 주고 안겨 주는 자율성은 참다운 의미의 자율성일 수 없다. 남들이 허용해 주고 안겨 주는 자율성은 어색한 표현으로 '依他的인 자율성'에 지나지 않을 뿐 참다운 자율성일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요즘 교육부 당국이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이 대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마치 대학의 자율성을 허용해 주고 안겨 주는 듯한 인상을 풍길 수도 있다. 당국이 허용해 주고 안겨 주는 자율성일 때, 또 그것이 '의타적인 자율성'이고 참다운 자율성일 수 없다면, 교육부 당국이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대학의 자율성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도 국민들 스스로에 의해서 쟁취된 것일 때 보람을 느끼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듯이, 대학의 자율성도 대학 구성원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일 때 보람을 느끼고 참 뜻을 지닐 수 있다. 그리고 대학 구성원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해낸 대학의 자율성일 때, 대학의 권위와 연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 大學의 權威는 自律性을 쟁취한 바탕 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